

첫방송 '가시나들', 새로운 '힐링예능' 기대된다



'나는 가수다' 이후 첨제에 빠졌던 MBC 일요 예능 '일밤'은 2013년 '아빠! 어디가?'와 뒤판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를 편성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물론 '아빠! 어디 가?'는 '1박2일'의 아기버전, '진짜 사나이'는 군대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함과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서 보여주는 뜻밖의 상황들에 시청자들은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일밤' 1부는 '아빠! 어디가?' 종영 후 '애니멀즈'라는 과도기를 거쳐 2015년 4월부터 '비스터리 음악 쇼 복면가왕'을 끈질기면서 현재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밤' 2부는 2016년 11월에 폐지된 '진짜 사나이'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코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실제로 '진짜 사나이' 이후 편성된 '온밀하게 위대하게' '세모방' '오지의 마법사' '두나이' '공복자들' 모두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MBC는 지난해 10월부터 차인표, 김용만, 권오중, 안정환 등을 내세운 '공민남편'을 편성해 지난 12월까지 약 7개월간 방송했다. '공민남편'은 지난 4월 7%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지만 상승세를 잊지 않고 평지됐다. 그리고 '공민남편'의 빙자리는 조금 새로운 느낌의 예능이 차지했다. 시골마을 할머니들과 걸그룹 멤버들의 조화가 기대되는 여성 중심 예능 '가시나들'이다.

▲ 여성 예능인들의 전성기에도

좀처럼 성공하기 힘들었던 여성 예능

개그우먼 이영자는 지난해 연말 시상식에서 KBS와 MBC의 연예대상을 훨씬며 데뷔 후 최연성기를 달리고 있다. 이영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맛보고 국전을 했던 간식이 이제 전국 분식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메뉴로 자리 잡았을 정도로 그는 영향력이 큰 예능인이다. 작년 연말 시상식에서 이영자의 가장 강력한 리아벌로 꼽히던 인물 역시 여성 예능인 박나래였다. 바이올린으로 '여성 예능인의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예능인을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들은 시청자들이 큰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여성예능+시골예능, 가능성 보여줘

여성 예능의 원조라 할 수 있는 2004년 KBS '해피 선데이-여걸 파이브'는 이경실, 정선희, 현영, 강수정 등 여성 출연자들이 다양한 게임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걸 파이브'는 여성 걸식으로 멤버를 늘리면서 시즌 2까지 이어져 있는데 당시 '여걸 식스'로 연출 데뷔를 한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나영석PD다.

하지만 '여걸 파이브' 이후 여성 예능을 대표할 만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2007년 노골적으로 '무한도전'의 자매 프로그램을 표방한 MBC의 '무한걸쓰'는 송은이, 김숙, 신봉선, 김신영, 안영미, 정시아, 홍보 등 많은 여성 예능인이 출연해 시즌 3까지 방영되며 6년간 다양한 재미를 선사했다. '무한걸쓰'는 2012년 6월 지상파 주말 시간으로 끌어지는 파격 편성을 계발했지만 '무한도전'의 이름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끌어 극복하지 못했다.

2009년과 2011년 두 시즌에 걸쳐 방송했던 농어촌 버라이어티 '청춘불패'는 당시 범람하던 인기 걸그룹 멤버들이 대거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다.

세월이 흐른 후에 보면 소녀시대의 유리와 씨나, 효연, 카리의 구하리와 강지영, 브이걸의 나르사, 포미닛의 협아, F(X)의 빅토리아, 시스타의 보라, 미스에이의 수지 등 출연진의 면면이 매우 화려했다. '청춘불패'는 대만과 일본에 수출되며 화제를 모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그리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 못했다.

2010년 SBS에서 방송된 '일요일이 좋다' 영웅호걸은 노사연부터 아

이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연예인들이 출연해 직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방송기간 동안 나름이 팀 문제로 이탈하는 기간이 늘어났고 아이유의 인기는 너무 높아져 결국 프로그램은 10개월 만에 폐지됐다. 2016년에 첫 방송된 '언니들의 슬램덩크'는 여성 연예인들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그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시즌 이후 시청률이 떨어지며 조용히 폐지됐다.

▲ 첫 방송에서 보여준 할머니와 출연자들의 의외의 조화

'가시나들'은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들'의 약자로 이미 수많은 예능프로그램에서 다룬 바 있는 전형적인 '시골 예능'의 향기를 강하게 풍긴다. 한글 선생님으로 출연하는 배우 문소리는 성균관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선생님 캐릭터에 꽤나 어울려 보인다.

하지만 실제 문소리의 예능 경험은 JTBC의 단편영화 제작 프로그램 '전체관람가'와 영화 감상 프로그램 '방구석1열' 정도다.

나머지 출연자들은 대부분 걸그룹 멤버들로 구성됐다. '가시나들'에는 시그마를 학생 억으로 위키미키의 최유정과 우주소녀의 수빈, (여자)아이들의 중국인 멤버 우기, 이달의소녀의 이브, 그리고 배우 장동윤이 출연한다. IOI 출신의 최유정이 그나마 예능 경험이 많은 편이지만 회려한 무대에 익숙한 걸그룹 멤버들이 또래 아이들이 아닌 예능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할머

니들과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결국 '가시나들'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일반인 할머니 출연자들의 활약(?) 여부다. 제작진은 '나 혼자 산다', '전지적 참견시점' 등에서 화제가 됐던 일반인들이나 '미운우리새끼'의 '모(모)벤져스'처럼 '가시나들' 할머니들의 푸근함과 엉뚱한 매력을 잘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할머니 출연자들이 연예인 출연자들과 좋은 호흡을 보인다면 '가시나들'도 새로운 개념의 여성 예능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가시나들'은 19일 첫 방송에서 시청자들을 사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할머니들은 저마다 글을 배우는 시연들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문소리의 진행도 기대 이상이었다. 애교 많은 최유정과 수업 시간에 풀 죽어 있는 할머니에게 당당해지는 이브, 할머니와 프로레슬링 경기를 보면서 함께 즐기는 우기, 채소 이름을 몰라 구박 당하는 수빈 등 꽉꽉 역할의 학생들도 낯선 시골에서 기대 이상의 적응력을 선보였다.

인생은 마스터했지만 한글이 어려운 할매들과 한글은 알지만 인생이 궁금한 찍꿍들의 이야기를 다룰 착한 여성 예능 '가시나들'이 이제 첫 걸음을 떴다. 아직 3주 짜리 파일럿 프로그램'이란 딱지를 붙이고 있어 설불리 '가시나들'의 정규편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성 예능과 시골 예능의 장점을 잘 섞는다면 '가시나들'은 일요일 저녁에 편하게 접근하기 좋은 힐링예능으로 시청자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주소녀, 6월4일 컴백 확정...차세대 썬더퀸 도전



공개된 이미지에는 시원하고 청량한 바다를 둘보이는 모래사장 위 우주소녀 멤버들이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우주소녀 멤버들은 다 함께 손을 잡고 바다를 향해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여줘 그들만의 유쾌한 매력을 한층 더한다. 특히 더위를 물리치는 화려한 여름 패션과 다채로운 헤어 컬러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물들인다.

더불어 'For The Summer 2019.06.04. 6PM WJSN COMING SOON'의 텍스트가

스페셜 앨범으로 가요계에 컴백을 알렸다. 당시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과 매혹적인 퍼포먼스로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우주소녀는 이번 스페셜 앨범으로 여름을 겨냥,

청량감 넘치는 이미지를 공개하며 음악 팬들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스페셜 앨범으로 '차세대 썬더퀸'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우주소녀는 그간 특유의 몽환적인 멜로디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대세 걸그룹으로 자리매김에 성공했다. 지난

2016년 '모모모'로 데뷔한 이후 '비밀이야', '너에게 닿기', '꿈꾸는 마음으로', '부탁해', 'La La Love (라 라 러브)' 등을 발표하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이 밖에도 전 멤버가 각종 드라마와 예능, OST 등 전방위로 활약하며 디제다 능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풀색조 매력으로 다양한 활약을 펼쳤던 우주소녀가 스페셜 앨범을 통해 올 여름을 시원하게 강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우주소녀는 오는 6월 4일 스페셜 앨범 'For The Summer'(포터 썬더) 발표를 앞두고 컴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식당2' 대표이미지 공개..돈까스 아닌 '강볶이'



'강식당2'의 대표이미지가 공개됐다.

tvN 예능프로그램 '강식당2'가 오는 31일 밤 9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지난 '신서유기'에서 완벽한 호흡으로 웃음을 안겼던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안재현, 송민호, 피오에 이어 원년 멤버인 규현이 군재 후 돌이온다는 소식만으로도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

실제로 '강식당2' 식사 추첨에 최다 6만명의 인원이 지

원하며 그 관심을 입증했다.

20일 '강식당2'의 제작진이 멤버들의 전망 넘치는 모습이 담긴 대표이미지를 공개했다.

명실상부 '강식당'의 메인 세프 강호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포즈를 취한 멤버들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종식도와 스펜지를 손에 휘어 수근부터 대파와 양파를 든 피오 까지 '강식당2'에서 이들이 담당하게 될 업무를 궁금증이 쏟아진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강식당2'의 메뉴에도 관심이 쏟아진다.

대표 이미지 속 간판에는 '강복이'라고 되어있어 주 메뉴를 조금이나마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 지난 시즌 '사장이 더 많이 먹는'에 이어 이번 시즌에는 '회탕도 반한 것'이라는 태그가 붙어 기대를 더 한다.

과연 이들이 선정한 메뉴들은 무엇일지, 또 '강식당2' 오픈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다음 주 방송되는 첫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늘의 운세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음력 4월 17일)



▶ **쥐** 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 겸손한 자세로 사물을 바라보라. 노력과 인내가 절정을 이루 때 구름은 걷히고 곧 태양이 만물을 비춘다. 1, 2, 4월생 투자는 금융, 통신업이 좋다. 빨간색이 길하다. 사랑하는 이에게 좀 더 관심을 쏟아라.



▶ **собака** 좋은 컴퓨터를 가졌다 해도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 이드 홀랑한 아이템과 포부가 머리 속에 머물고 있으니 빛을 발할 수 있겠는가. 3, 6, 9월생 쇼핑과 투자는 금융, 통신업이 좋다. 모험심이 필요하다.



▶ **호랑이** 1, 6, 9월생 경험 없이 거창하게 시작하면 실수가 따른다.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할 좋은 계기가 될 듯. 삶의 주인은 자기자신임을 알 것. 원하는 삶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임을 잊지 마라.



▶ **토끼** 경쟁에 경차가 있을 수. 신혼이면 기다렸던 임신이 될 운. 운치있는 분위기 조성이 어렵지. 사업가는 동, 북쪽 친척으로부터 금전도움을 받겠다. 3, 6, 9월생 연민이나 동정으로 시작된 감정은 위선이다. 희생은 과장의 어휘일 뿐.



▶ **토끼** 노력에 비해 결과가 백해무익. 과정을 중시하라. 획생과 농사로 보람을 찾을 때이다. 쥐, 양, 돼지, 닭띠를 가까이 하면 뒤에서 도움 줄 듯. 그, 드, 흥성씨 형제간 사소한 대화로 우애에 금이 갈까 우려된다. 폭언은 금물.



▶ **뱀** 성급하게 전진하다가 어서구니 없이 낙하하기 쉽다. 금하게 처리하려니 잡음이 생기고 역부족이구나. 힘에 넘다. 준비하면서 침착하게 진행하라. 답답한 마음은 급한 성격 탓이다. 그, 모, 오, 흥성씨는 직장과 가정에도 변동될 수 있다.



▶ **용**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헤어짐을 가슴 아파하지 말라. 헤어짐은 새로운 만남을 예고하는 법. 금전을 받기는 해도 빌려주지는 말라. 술을 태우게다. 4, 5, 6월생은 오후에 유혹이 있으니 동쪽 사람과 전화 통화를 삼가라.



▶ **양** 햇빛과 온기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천동과 번개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내 실속만 차리다가는 제 밖에 걸려 넘어지는 격. 그, 브, 지 성씨는 융통성이 있게 처신하라. 3, 8, 12월생 피곤이 누적했으니 꼭 휴식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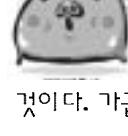
▶ **원숭이** 저 봉에 오르려면 사다리가 필요하다. 무조 건너려고 방향까지 알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라. 소, 용띠가 큰 힘을 줄 것이다. 4, 5, 7월생 신신이 불안정하겠으니 산책이나 독서, 음악 감상하며 하루를 보냈으면 어떨지. 남, 서쪽이 길.



▶ **닭** 어두운 밤에 불빛이 필요하듯 내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2, 10, 12월생은 동쪽에서 사람을 만나면 미래를 설계하고, 용기 있게 해하라. 그, 오, 드, 흥성씨는 관심 없던 이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내일을 위해 좋겠다.



▶ **돼지** 오늘은 베푸는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라. 보이지 않는 베푸의 가장 큰 그릇이다. 냄, 소, 오 성씨인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이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만큼은 금기하라.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을 듯.



▶ **마** 친구와 회포를 푸는 것은 좋으나 언행을 조심하라.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구설에 오를 수 있다. 2, 7, 8월생은 서로에게 도움 줄 듯.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벨이 울릴 것이다.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언행을 멀리 할 방법. 지혜롭게 대처할 것.